

KT 기가아일랜드 사업 6개월... '첨단 ICT 섬' 변신 신안 임자도

먼 바다서 온실 관리... 손목기기로 당뇨 체크

학생들 화상으로 영어 교육 독거노인 센서로 건강 살펴 KT, 올 5억원 추가 투자

임자도에서 귀어해 어업과 농업을 같이 하고 있는 박모(47)씨는 부부가 함께 바다에 나가서도 비닐하우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온실에 설치된 센서가 문이 열려 있는지, 분무기의 물이 제 때 분사됐는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조만간 임자도 주민들은 손목에 시계와 유사한 정보통신기기를 부착하면 당뇨나 혈압 등에서의 이상징후가 곧바로 의료기관에 전달되는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KT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기가 아일랜드' 사업 대상지가 된 임자도의 6개월간 변화는 눈부시다. 정보통신기술이 농업, 주민 일상, 사회복합, 문화 등과 결합하면서 3600여명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기가 아일랜드 사업은 크게 원경문화강화가 이뤄지는 '기가 사랑방', 지역의 로기관과 연계된 모바일 건강검진인 '요닥서비스', ICT를 활용한 온실 관제시스템인 '스마트 팜'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요닥서비스만 보건복지부의 허가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상당부분 진척됐다.

'기가 사랑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80인치 TV 화면을 통해 학생들은 결연을 맺은 20명의 원어민 교사로부터 화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사랑방은 주민들의 영화관,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활용되며, 섬 밖 세상과 소통하는 장으로 부상했다.

올해부터는 독거노인의 손목에 센서를 달아 그 움직임을 곧바로 임자면사무소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KT는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섬 가운데 임자도를 지난해 제1호 '기가 아일랜드'

로 선정하고, 4억원을 투자해 기가국과 중계기 등 모두 29개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KT는 올해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새우젓 보관 도구를 활용하는 사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자도는 최근 귀농·귀어자들의 증가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파생산이나 민어·병어잡이, 김 양식 등으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가 늘고 있다.

3년째 임자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향란(여·48) 계장은 "기가 아일랜드

로 사업으로 인해 섬 주민들이 과거 상상할 수도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섬 곳곳에서 인터넷이 되고,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이를 배우기 위해 외지에서 찾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자도를 찾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조마을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임자도 거주 이주여성들이 '기가 아일랜드 사업'에 따라 화상을 통해 한국문화를 익히고 있다. 기가 아일랜드 사업은 원경문화강화, 지역의로기관과 연계된 모바일 건강검진, 온실 관제시스템인 '스마트 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갑상선암·유방암·위암 順 발병

삼성생명 최근 10년간 암 조사... 남성은 위암·대장암 많아

오늘 세계 암의 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순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세계 암의 날(4일)'을 맞아 암보험 가입자 중 지난 10년간(2005~2014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27만2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전체 30.4%를 차지했다. 유방암(13.4%)과 위암(12.3%)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위암(21.2%)과 대장암(14.2%) 발병이 가장 많았고, 최근 발병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갑상선암(13.1%)이 세번째였다. 여성은 갑상선암이 전체 지급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유방암(20.7%)

과 위암(7.4%) 순이었다. 2005년 대비 지난해 진단 건수는 약 1.7배 늘어났다.

모든 종류의 암 진단이 증가한 가운데 갑상선암과 폐암이 각각 2배 이상, 폐암·유방암·대장암 등의 발병이 각각 50% 이상 늘었다. 지난해 남성의 갑상선암 발병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33%였고, 폐암·폐암·대장암 등도 50% 이상에 달했다. 간암은 발생 건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은 폐암(203.8%), 갑상선암(130.9%), 폐암(116.7%)의 진단이 많이 증가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10년간 암 진단 보험금으로 총 5조3672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1건당 2000만원 수준으로, 암 수술이나 입원비 등 추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더하면 1건당 3000만원 수준의 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산림문화자산 후보지 선정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등 6곳 보전·관광자원 활용

전남도는 3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 봉곡 전통 마을숲, 나주 불회사 사찰림, 해남 풍혈동굴, 무안 봉대산성, 완도수목원 숲가마터산림 등 6곳을 전국 최초로 산림문화자산 유력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림문화자산 선정은 보전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깊으나 문화재 등으로는 보호받지 못해 방치된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숲길탐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홈페이지에 지정 예정 공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경 전남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양묘에 의해 생산된 묘

목으로 가로수 숲길을 조성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보존을 통해 전국 명소가 된 점이, '완도수목원 숲가마터'는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구로, 조선왕조실록에 완도에 서 숲을 생산해 우수영에 격일로 공납한 기록이 있는 등 역사성이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 불회사 사찰림'은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선사가 마셨던 오랜 역사성을 가진 차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해남 풍혈동굴'은 전남 유일 풍혈동굴로 호남읍지에 기록돼 충무공의 자취가 남은 유물과 연계성이 있다.

'무안 봉대산성'에서는 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대촌동에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35만㎡에 지식·IT 연구단지 조성... 전국 9곳 중 최대

광주시 남구 대촌동 일원에 35만㎡ 규모의 도시첨단산단입지가 들어선다.

3일 새정지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실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대촌동 일대 35만5천㎡를 도시첨단산단입지 조성하는 계획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단지 조성은 남구 면적의 6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한 뒤 추진된다.

도시첨단산단입지는 지식, 문화, IT, BT 등 첨단산단과 이와 관련한 교육,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다. 이번에 들어설 남구 산단은 국토부 지정 전국 9곳의 도시첨단산단입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단지 조성은 지난 1995년 남구 분구 이후 처음인데다 송암산단 이후 약 40

여년만에 남구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라는 게 장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산단에는 지난해 광주지역본부 신설이 확정된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10만㎡ 규모로 들어서는 등 에너지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입주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

이에따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민의 민원 해소 등 일거양득 효과가 기대된다. 또 관련법에 따라 30만㎡ 이상이면 도로개설, 상하수도 및 폐수시설 건설비 등의 국고지원이 가능해 조기착공과 완공도 기대된다.

이 산단은 장 의원이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개발 유치를 위해 인근지역에 산단조성의 필요성을 국



토부에 제안,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혁신도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살린 남구가 광주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경량 AI 위치추적장치 개발

국내 연구진이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매개체로 의심되는 작은 조류에도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무게 22g의 초경량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 벤처기업인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함께 SK텔레콤의 데이터로밍서비스 기술협력을 받아 22g짜리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추적기(WT-200)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국산 위치추적기는 무게가 50g으로 AI 전파 매개체로 추정되는 각종 오리류 철새 중 가장오리 같은 작은 조류에는 부착할 수 없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WT-200은 배터리 대신 중성이 가능한 태양전지를 사용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GPS로 오차범위 10m 이내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세부담, 봉급자 늘고 기업은 줄고

근소세 4년새 0.7%p ↑ ... 법인세 3.6%p ↓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

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전망과 전라남도 미래가치 분석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5. 2. 6(금)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2. 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3.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4. 부동산 취사(取捨) 선택선택 - 돈되는 부동산 선택요령 10계명

1부 김하현 교수
· 목포대학교 법학박사
· 대법대학교 경영학 박사
· 공인중개사 총연맹 중앙위원
· 전국부동산 전문상담 운영
· 부동산 칼럼연재중(각 신문사 및 기관)

2부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의력을 향상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국 문외하사민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